

# 중국의 둥근 깃 전래에 관한 소고

-《五百盜賊歸依圖》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강사 김 영 재

## 目 次

I. 서 론	V. 결 론
II. 《五百盜賊歸依圖》	참고문헌
III. 중국에의 유입과정	ABSTRACT
IV. 중국에서의 착용과정	

## I. 서 론

중국 漢族 고유의 깃은 직령이다. 둥근 깃은 唐 (618~906년) 이래로 남자 袍服에 사용된 새로운 양식으로 明代까지 착용되었다. 둥근 깃의 중국전래에 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김미자교수는 《中國의 團領에 대한 研究》에서 西魏(535~550년)때로 추정하였고,<sup>1)</sup> 문광희는 《韓·中國領의 比較研究》에서 代(315년)로 추정하였다.<sup>2)</sup>

본 연구에서는 둥근 깃의 전래와 그 정착과정을 둔황 제285굴의 벽화《五百盜賊歸依圖》를 중심으로 알아 보고자 한다.

## II. 《五百盜賊歸依圖》의 배경

둔황 제285굴의 남벽 상부 중앙에 그려 있는 《五百盜賊歸依圖》는 西魏 文帝 大統 4年(538년)

혹은 5年(539년)에 제작된 것이다.<sup>3)</sup> 이 벽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sup>

옛날 橋薩羅國에 5백명의 도적이 있었다. 이들은 세력이 매우 강하였고 잔혹하여 민폐가 몹시 심하였다. 그래서 교살라국 국왕은 군대를 파견하여 이들을 섬멸코자 하였다. 군 대와의 싸움에서 이들 5백도적은 모두 체포되었으며, 눈이 뻘히는 참형에 처해진 후 산 속으로 추방되었다. 이들은 눈이 뻘힌 고통으로 몹시 괴로워 큰 소리로 울부짖었는데, 마침 그 숲에 있던 부처가 이를 가엾게 여겨 神力으로 묘약을 만들어, 바람으로 이들 눈에 들어 가게 하여 이들은 광명을 되찾게 되었다. 도적들은 부처의 설법을 듣고 깊이 깨달아 사발하고 불법에 귀의하였다.

이 내용은 시대가 바뀔에 따라 지명이나 인명 등의 배경을 그 시대에 맞게 바꿔 설정함으로 일반인의 佛經에 대한 이해를 쉽도록 하였다. 둔황

1) 김미자 <중국의 단령에 대한 연구>《복식》제3호, 1980. 3, p.47

2) 문광희 《韓·中國領의 比較研究》, 부산대 가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7, p.21

3) 敦煌文物研究所 《敦煌藝術寶庫-》(臺灣, 地球出版社, 1988년), p.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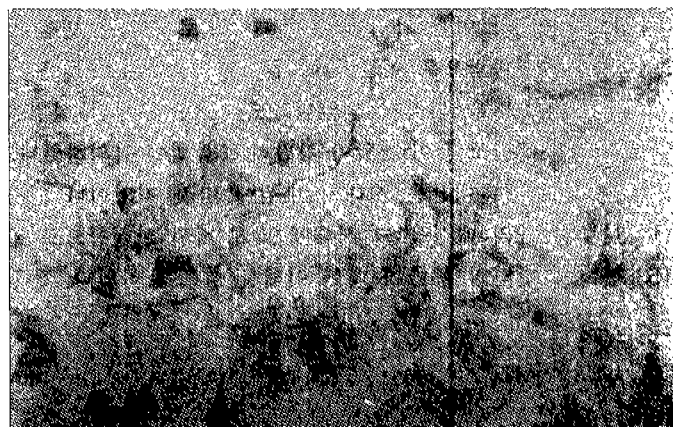
4) 《大般涅槃經》卷16

제285굴의 벽화는 제작년도가 西魏이므로, 그 배경은 교살라국이 아니라 서위 혹은 그 이전이 된다. 벽화의 내용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개되어 간다. 왼쪽부터 보면, 도적들이 官軍에 대항하여 격렬하게 싸움을 하나, 장비가 허술한 도적들은 말과 투구까지 갖춘 官軍에게 패하고 모두 체포되고 만다. 이들은 모두 옷이 벗기고 눈이 뽑히는 형벌을 받았다. 눈을 잃고 숲 속에 버려진 모습이 숲을 사이에 두고 묘사되어 있다. 숲 속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던 이들은 부처의 신력으로 눈을 되찾고 부처의 설법에 감화되어 모두가 불법에 귀의하여 산 중에서 도를 닦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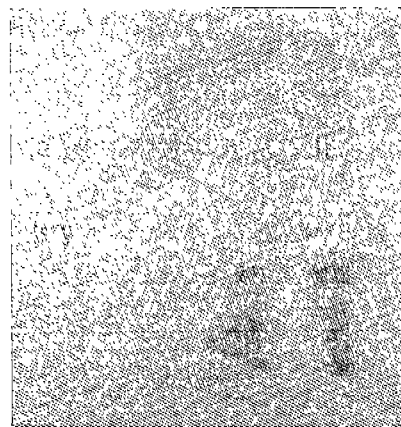
벽화에 묘사되어 있는 이들의 복장을 살펴 보면, 남벽 상부 동측(도 1)에 그려진 도적들의 복장은 둥근 깃의 옷으로, 깃·수구·설·단에 선처리가 되어 있다. 옷을 걷어 올려 허리에서 끈으로 고정시켰다. 그래서 옷단이 큰 곡선을 이루고 있고 허리끈을 풀면 옷길이는 무릎 훨씬 아래까지 닿을 것이다. 소매 역시 걷어 올려 행동하기에 편하게 하였다. 하의로는 바지에 행전을 들렀다. 이들을 공격하는 官軍의 차림도 이들과 비슷하나, 여기에 투구를 쓰고 背褶을 더했을 뿐이다. 도적이거나 관군 모두 窄袖이며, 官軍의 지휘관은 廣袖를 착용하고 있다. 이들 사이사이에 의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도적들이 형벌에 처해지기 전에 벗겨진

옷을 묘사한 것으로, 도적들이 착용했을 때보다 더 자세하게 의복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그 특징을 알 만한 것은 깃 부분이다. 깃의 양 끝에 긴 끈이 달려 있고 왼쪽 걸어깨와 오른쪽 안어깨에 둥근 고리가 각각 묘사되어 있다(도 2 벗은 옷의 확대 사진). 이를 착용할 때 왼쪽 깃 끝의 끈을 오른쪽 어깨 고리에 꿰면, 깃은 둥근 형태를 이루면서 좌임이 된다(도 1 중앙아래쪽 5인의 도적 모습). 5백도적은 물론 官軍 역시 같은 형태의 옷을 입고 있으므로(도 1 말탄 군인 참조), 이 의복이 拓跋氏[선비족] 고유 복장이 아닐까 한다. 벽화에서의 高官은 漢族의 복장을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 상황이 北魏 孝文帝(471~499년)의 漢化政策이 高官大爵에게는 이미 어느 정도 제도화된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일반 백성과 微官은 아직도 그들 고유의 복장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벽화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끈을 이용하여 깃을 둥글게 만드는 양식은 물론 탁발족에게만 발견되는 양식이 아니다. 예를 들면, 서터키스탄의 파야즈테페사에 그려진 인물(도 3)을 들 수 있다. 파야즈테페사는 City Site at Termez유적지 부근에 있는 사원으로, 그 제작년도는 3~4세기 경으로 추정된다.<sup>5)</sup> 짧게 자른 머리[短髮·剪髮]의 남자 상반신으로, 옆얼굴로 묘사되어 있다. 그가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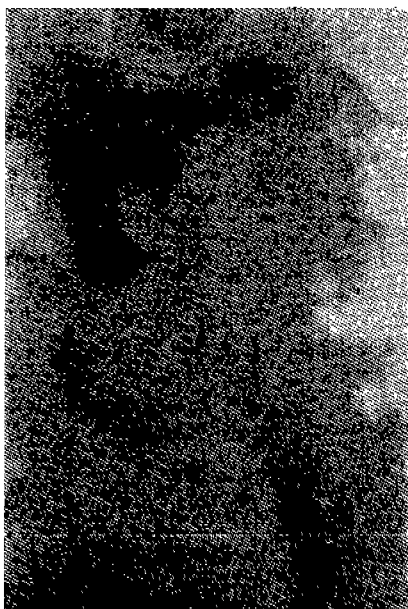


〈도 1〉 五百盜賊歸依圖(敦煌藝術寶庫1, 131)



〈도 2〉 도 1의 부분 확대

한 복장은 옅은 미색의 의복으로 깃·섶은 검은 색으로 되어 있다. 왼쪽 어깨에는 붉은 끈으로 깃을 여미어, 둥근 깃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옷은



〈도 3〉 공양인물(シルクロード의殘映, 125)

여 자학하고 있는 민중을 묘사하고 있다. 오른쪽의 인물이 착용한 상의는 흰색이며 窄袖로, 깃과 소매 끝에 검은 선이 들렸고, 안감은 벽색(碧色) 깃과 여민 끈색이 다를 뿐 〈도 2〉와 같은 형태라 하겠다. 이 외에 키질벽화에에서도 깃을 등글게 여미거나 여미지 않은 젖힌 상태로 표현된 것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키질벽화에 표현된 남자와 파야즈테페 벽화의 남자는 모두 짧게 자른 머리를 하고 있고, 또 이들 복장 역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 민족이 동일 민족<sup>6)</sup>이거나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키질벽화를 보면, 벽화제작 초기의 경우 깃을 젖혀 입는 경우와 깃을 등글게 여미 입는 두 가지 방법이 공존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여미었는가는 4세기 초에서 6세기 중엽에 제작된 벽화에서는 알 수 없고, 키질 제 244굴의 《涅槃大衆》(도 4)에서 그 여밈방법에 대한 단서를 찾아 볼 수 있다. 《涅槃大衆》의 제작연대는 탄소14측정에 의하면 600~650년 사이로,<sup>7)</sup> 부처의 입적을 슬퍼하



〈도 4〉 涅槃大衆(キジレ石窟3, 224)

5) 《シルクロードの殘映》(日本, 講談社, 1988年) p.125

6) 쿠차인은 아리아계로 안면이 전체적으로 둥근 모습이며, 반측면관을 특징으로 한다고 함. 안면의 세부는 길고 중간이 약간 납작한 코, 매우 가느다란 입, 둥근 턱으로 묘사됨 : 권영필 《중앙아시아》(삼화출판사 : 1986) p.138

7) 新疆自治區文物管理委員會·拜城縣千三洞文物保管所編 《キジレ石窟》第3卷(日本, 平凡社, 1983年), p.250

이다. 오른쪽 깃 끝에는 깃이 연장된 듯한 긴 끈이 달려 있다. 왼쪽 깃은 뒤로 늘어진 듯하며 긴 끈이 갈비뼈 뒷쪽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양식은 《五百盜賊歸依圖》의 포(도 3 참조)를 입혀 놓은 것과 같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벽화에는 끈으로 여민 예 외에도 단추를 이용하여 깃을 여민 예도 있다. 즉 오른쪽 인물의 상의에서 볼 수 있다.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인물의 머리양식도 <도 4>의 인물과 같은 剪髮로 되어 있다. 이 인물의 복장은 오른쪽 인물과 같으나, 오른쪽 깃끝에 단추가 달려 있는 것이 다르다. 왼쪽 깃부분은 벽화의 모서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의 복장만으로도 깃을 여미지 않았을 때는 젖힌 깃[번령]형태가 되지만, 끈 혹은 단추로 여미면 둥근 깃[반령·단령]을 이룬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 젖힌 깃 안에 round neckline의 貫頭衣를 착용한 것이 보인다.

이상에서 보면 키질과 파야트레페에서 발견되는 둥근 깃 혹은 젖힌 깃 상의는 주로 剪髮된 민족에게서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돈황의 拓跋氏도 착용하고 있어 이를 반드시 짧은 머리를 한 민족의 특징적인 복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각 민족에 대한 자료의 제한으로 어느 한 민족의 복장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단지 이런 양식이 키질벽화에서 많이 발견되므로, 이를 제작한 쿠차인의 복장이라 斷定한다는 것은 물론 무리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당시 쿠차<sup>8)</sup>는 西域北道の 중간 위치에 있으면서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그 역할이 매우 컸다. 즉 東西交易를 빈번하게 하여, 東西文化의 교류를 자극했을 뿐 아니라 東西의 우수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 이를 재전파하기도 하였다. 사실 이 지역에서 문화적 특성이 어디의 영향을 어떻게 받아 성

립되었는지를 규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동서문화의 집합체이기도 했던 쿠차인이 제작한 키질벽화에서 발견된 복장을 그들의 복장이라고 暫定하고자 한다. 이들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고학적 발굴과 민족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Ⅲ. 중국에의 유입과정

둥근 깃의 중국전래는 南北朝시대로 보이며, 그 전래역할은 앞에서 언급한 선비족의 拓跋氏 영향과 쿠차樂舞 전래와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 1. 탁발씨에 의한 전래

拓跋氏는 본래 흑룡강 연강유역의 大興 安嶺 北部 嘎仙洞부근이 그 거주지였으나, 점차 그 세력이 확장되어 河西로 옮겼다. 258년에 定襄의 盛樂(내몽고 和林格爾縣 북쪽)으로 천도하였다. 그 후 점차 세력이 확대되어 북부 중국을 통일하여 南北朝시대에 강력한 北魏(386~534년)왕조를 이루다가 534년에 東·西魏로 분리되었고 唐初에 吐蕃에 의해 멸망했다. 탁발씨는 유목민족으로, 그 생활 거주지는 黑龍江에서 河西, 內蒙古 등에 이르며, 이들이 중국 북부를 동서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탁발씨<sup>9)</sup>는 그들의 세력을 점차 증원으로 확대하면서 중국의 漢族과의 장기간에 걸친 雜居 혹은 雜婚이 이루어졌다. 탁발씨는 漢族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다. 특히 북위의 효문제(471~499년)는 중국의 문화에 심취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기 위해 많은 개혁을 단행하였다. 皇室의 姓을 중국식 姓으로 바꾸었으며, 왕손을 漢族의 귀족여자들과 결혼하게 하였으며 선비어를 사용하는 관리는 면직시키기까지 하

8) 쿠차는 西域北道の 대표국으로 동서무역의 중심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6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돌궐의 타림분지 지배로, 그들과의 雜婚이 이루어지면서 그 세력이 급격히 약화·상실되었다.

9) 王仲榮《魏晉南北朝史》, 上海人民出版社, 1994, p509.

였다. 심지어는 남방으로 이주한 사람의 北葬을 엄금하여 南遷한 경우에는 남쪽지역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호복의 착용을 엄금하였다. 특히 공복을 제정하여 관리에게는 강제적으로 착용토록 하였다.<sup>10)</sup> 그러나 일반인에게까지 강요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사려된다. 漢化過程에서 漢人들 또한 이들 선비족의 문화에 동화되어간 것으로 보인다. 雜居와 선비족과의 혼인으로 漢人들 역시 선비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복장을 자연스럽게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탁발씨에게까지 漢服을 강요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인에게는 어느 정도 그들 고유의 복장의 착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며, 漢族과 탁발씨간의 혼인 및 雜居 등의 과정을 통해 선비족의 문화가 단시일 내에 漢族에게도 전파될 수 있었을 것이다. 孝文帝의 漢化政策을 둔황 제285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五百盜賊에게 刑을 언도하는 관리와 고급 장교는 소매폭이 넓은 廣袖에 옷자락이 끌리는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하급관리 및 일반인은 窄袖를 착용하고 있다. 고급관리의 복장은 漢族의 복장이나, 일반민의 복장은 漢族과는 다른 형식의 그들 고유의 복장을 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전달된 둥근 깃 혹은 젓힌 깃양식의 복장이 이들 선비족 고유의 복장이고, 이들이 언제부터 이런 복장을 하였는가는 단정지을 수 없으나, 쿠차인과 더불어 이들 역시 둥근 깃 혹은 젓힌 깃 양식을 착용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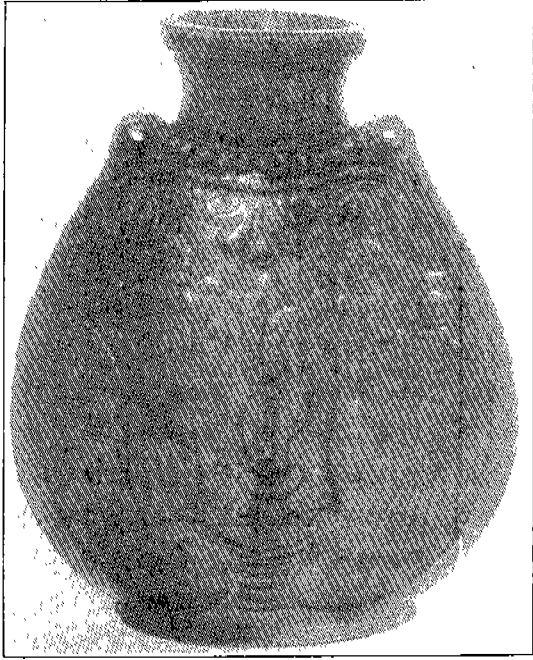
북위의 한화정책과 탁발씨·한족의 잡거를 통해 선비족의 服裝이 중원의 漢族에게 자연스럽게 착용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 2. 龜茲樂舞에 의한 전래

둥근 깃 혹은 젓힌 깃형태가 중원으로 전래된 또다른 경위로는 서역 문화, 특히 龜茲樂舞의 전래와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로 北齊 때 제작된 黃油扁壺가 있는데, 그 표면에 〈胡人樂舞圖〉(도 5)가 장식되어 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이들은 袍를 착용하고 있다. 이들의 차림은 《通典》의 기록에 의하면<sup>11)</sup> 樂工의 경우에는 머리에 烏絲布頭巾을 쓰고 緋絲布袍를 입고 緋布袴를 착용하고, 舞人의 경우 紅抹額을 쓰고 緋白袴奴를 착용하고 烏皮靴를 착용한 龜茲樂임을 알 수 있다. 龜茲樂은 呂光(後涼, 재위기간 386~403년)에 의해 龜茲가 멸망하였는데, 그 후에 외부로 전해졌다. 특히 北齊의 文宣은 龜茲樂을 좋아하여 그 스스로 龜茲樂을 연주할 정도로 龜茲樂에 대한 일가견이 있었다. 따라서 黃油扁壺에 장식된 樂舞圖는 龜茲樂을 공연하는 사람들로 龜茲服裝을 하고 있다. 龜茲服裝이 그 樂舞와 함께 北齊 이전에 중원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중국화된 것으로 보인다. 즉 깃을 여미는 방향이 좌임이 아니라 우임이라는 것이다. 〈도 1〉에서의 좌임인 의복은 龜茲式과 같은 양식이나, 〈도 5〉에서는 이미 우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좌임이 우임으로 바뀐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는 더 이상 龜茲式的 젓힌 깃이 아니라 중국식 단령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서위(535~555년)와 북제(550~577년)사이로 추정된다. 또한 이렇듯 단시간내에 깃의 양식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북위의 漢化政策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10) 탁발씨의 복장이 하서로 옮겨진 후(258년이전) 서역지역의 복식영향으로 둔황벽화에서 보이는 복장을 착용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둔황벽화에 표현되었던 복장을 계속 착용한 자료보다는 오히려 서역의 다른 민족에게서 그 양식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11) 王仲榮,《魏晉南北朝史》, pp.545~550.



〈도 5〉 黃油扁壺(河南省博物館, 123)

#### IV. 중국에서의 착용과정

등근 깃 양식이 중국에 소개된 이후, 중국에서는 전래된 양식을 그대로 착용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특성에 맞게 변형시켜 착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변형이 좌임을 우임으로 바꾼 것이며, 또 전래된 착장법과는 달리 점차 깃을 여며 입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착용할 때 끈으로 여미기 보다는 단추를 이용하여 여미게 되었다. 이것으로 중국에 전래된 등근 깃은 후에 단령이라 불리는 형식으로 되었다. 《舊唐書》의 〈輿服志〉에 袍에 대한 발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高氏諸帝, 常服緋袍. 隋代帝王貴臣, 多服黃紋綾袍, 烏紗帽, 九環帶, 烏皮六合靴. 百官常服, 同於匹庶, 皆著黃袍, 出入殿省. 天子朝服亦如之, 惟帶加十三環以爲差異, 蓋取於便事. 其烏紗帽漸廢, 貴

賤通服折上巾, 其製周武帝建德年所造也. 晉公宇文護始命袍加下襪<sup>12)</sup>

즉, 북제의 여러 황제가 착용한 상복은 등근 깃 형식의 袍制였으며, 隋代에서는 북제를 이어 황제와 貴臣 또한 등근 깃형태의 포류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등근 깃형태의 포제를 朝服으로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唐代에 황제와 백관들의 상복과 공복으로 등근 깃형식의 포를 착용케 된 것은 隋代에 이미 제도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이러한 제도는 주 무제(561~578년)의 建德(572~577년)에 제정된 제도를 근거로 한다고 설명되어 있고, 진공 우문호가 여기에 襪을 대도록 하여 襪袍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襪袍는 포의 아랫단에 襪을 맨 것으로 깃은 등근 형태이다. 따라서 《舊唐書》에서 말하는 포는 중국식의 직령이 아니라, 탁발씨에 의해 전래된 등근 깃형태라고 하겠다.

중국 특히 唐에서의 등근 깃 착용은 매우 유행을 하여 남녀 모두 착용하는 일대 유행을 만들어 내었다. 이렇게 唐內에서 유행하게 된 것은 唐의 사회풍조가 외래의 것에 대한 폭넓은 수용과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인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중국을 왕래하는 胡인이 착용한 예와 외래문물과 더불어 유행한 龜茲樂舞와 관련된 中國藝人들의 착용으로 나뉜다.

##### 1. 중국에서의 외국인에 의한 착용

唐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로 많은 외국인이 唐의 수도 長安에 거주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의 왕래 또한 자유로웠다. 미술자료에도 이들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으며, 등근 깃과 관련된 자료를 몇가지 살펴봄으로서 중국에서의 그 정착과정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말을 끄는 인물〉(도 6)는 唐代에 제작된 三彩

12) 《通典》卷146〈樂六〉, 13

俑으로, 머리모양과 얼굴로 미루어 胡人임을 알 수 있다. 또 옷을 착용하는 방식 역시 중국의 漢族과는 달리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다. 즉 그 뒷모습을 보면 오른쪽 소매를 빼어 뒤로 젖혀 허리에서 둘러 묶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의 漢族에게서는 볼 수 없는 착용방법이다. 이런 착용법은 키질벽화에서도 관찰되는 것으로 등근 깃 혹은 젖힌 깃의 시원과 발생 및 보급을 연구하는데 좋은 단서가 되리라 생각된다. 등에 걸쳐진 깃 안쪽에 매듭단추가 보인다. 이를 앞면과 연결해 보면, 왼쪽 깃 끝에 달린 고리를 연결, 오른쪽에서 여미도록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 6〉 말을 끄는 인물( Arts of China, 154)

## 2. 중국인에 의한 착용

중국인에 의한 착용은 우선 남녀의 착용으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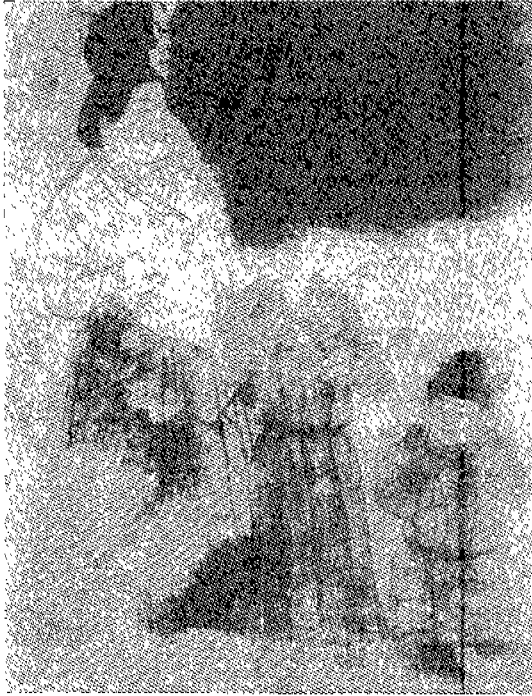
분된다. 등근 깃 양식이 일반 남성들에게 착용된 것과는 달리 여자에 있어서는 胡樂의 유행 및 胡風의 성행으로 일반여자의 男裝 유행으로 착용한 예와 藝人들이 공연을 위해 착용한 예, 그리고 궁인에 있어 임무 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착용한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남자의 등근 깃 양식 착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깃을 여미 입었다. 물론 깃을 젖혀 입은 것도 있다. 즉 韋洵墓壁畫(692년)(도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포의 깃을 젖혀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양 끝에 작은 단추가 달려 있는데, 그 깃의 방향을 보아 오른쪽에서 여민 것임을 알 수 있다.



〈도 7〉 남자인물( Arts of China, 127)

여자의 등근 깃 착용은 男裝과 관련된다. 특히 唐代(618~907년)에서 착용된 등근 깃의 袍는 藝人에게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韋懷太子墓壁畫 중 어릿광대가 男裝을 하고 있다(도 8). 어릿광대 한 사람은 깃을 여미어 착용한 등근 깃 형태이고, 다른 사람은 깃을 젖혀 입은 翻領形이다. 《新唐書》《五行志》의 기록에 의하면 태평공



<도 8> 어릿광대(墓室壁畫, 86)

주가 男裝을 한 적이 있다. 즉 紫衫玉帶·阜羅折上巾, 具紛礪七事, 歌舞於帝前. 帝與武后笑曰女子不可爲武官, 何爲此裝束<sup>13)</sup> 태평공주가 歌舞를 하기 위해 특별히 남장을 했으며, 공주가 착용한 武官 복장은 물론 공주의 常服이 아닌 舞服이었다. 唐代的 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sup>14)</sup> 하나는 軟舞로, 여자들이 여자복장을 하고 춤을 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健舞로, 여자가 남자복장을 하고 춤을 추는 것이다. 태평공주가 고종과 측천무후 앞에서 춘 춤은 건무였기 때문에 남장을 한 것이었다.

藝人 외에도 궁중에서 일하는 궁녀들도 행동의 편이함을 위해 남장을 하였다. 武后 萬歲登封 元年(696년)에 완성된 趙澄墓室壁畫에 남장을 한 궁녀



<도 9> 남장궁녀  
(唐代之服飾, 3-5)

가 있다. 네모난 상자를 들고 등근 깃의 포를 착용 있다. 허리에는 접섭대를 했고 長靴를 신고 목두를 썼으며 깃은 여며 둥글게 되어 있다(도 9) 이러한 모습은 唐代的 다른 벽화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章懷太子墓壁畫(706년)에서 궁녀의 활동 등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남아 있다. 비파를 들고 있거나 과일 혹은 주전자 혹은 화분을 들고 있는 모습들이 그것이다. 《唐六典》〈太子內宮〉에 의하면,<sup>15)</sup> 이들은 太子宮 내에서 생활하는 內宮官이며, 화분을 들고 있는 궁녀는 從八品の 掌園內官이다. 永泰公主墓壁畫(706년)에서도 각종 궁녀들이 묘사되어 있다. 그릇, 상자, 촛대, 부채 등을 들고 있으며, 이들은 공주의 재산을 관리하는 女官은 公主邑司로 從七品下에 속하며,<sup>16)</sup> 벽화에 묘사된 궁녀는 공주읍사가 관할하였다. 벽화에 묘사된 남장궁녀중 상자를 들고 있는 궁녀는 깃이 꺾혀진 포를 입었는데, 포의 깃끝에서 단추를 볼 수 있고, 이 단추를 잠근다면 이 깃의 형태는 보따리를 들고 있는 궁녀의 깃형태와 마찬가지로 등근 깃형태가 되는 것이다(도 10). 영태공주묘의 石槨線刻畫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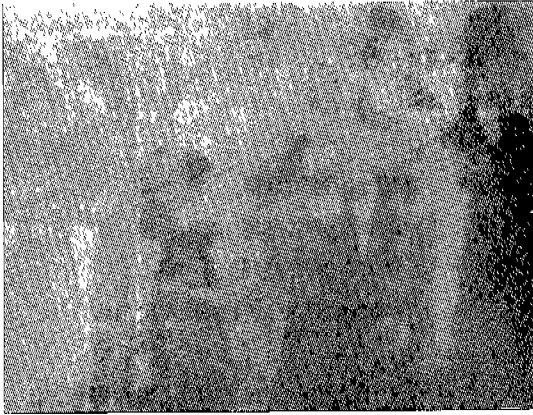
13) 《舊唐書》, 卷45, 〈輿服志〉, p.1951

14) 《新唐書》, 卷34, 〈五行志一〉, p.897.

15) 邱添生, 〈唐代文化與外來文化〉《師大學報》第16期, (臺灣, 國立臺灣師範大學, 1971年), p.253.

16) 李林甫等《唐六典》卷26〈太子內宮〉(北京 中華書局, 1992년), p.673.





〈도 10〉 궁녀들(Arts of China, 112)

韋洞묘(708년)에서도 남장궁녀가 있다. 이들 역시 깃을 여며 입거나(도 11) 깃을 젖혀 착용한 예(도 12)가 모두 발견되며, 젖힌 깃의 끝에 단추가 묘사되어 있어 단추로 깃을 여민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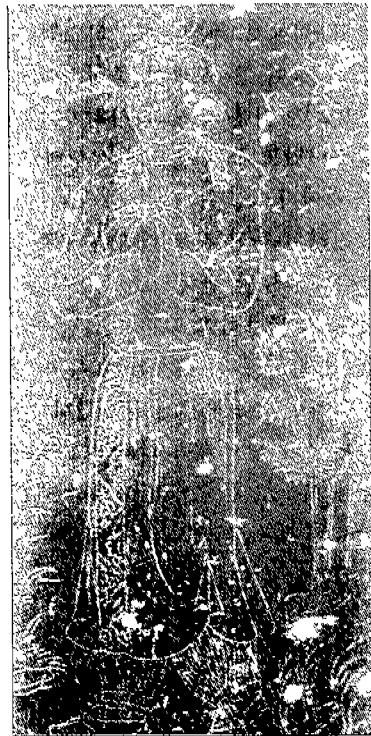
시중을 드는 사람이 남장을 하는 경향은 점차 확대되어 궁에서 뿐 아니라 일반 귀족들에게도 유행이 되어 班家の 노비들도 남장을 하였다. 그래서 “노비들도 난삼을 착용하여”,<sup>17)</sup> “위 아래가 모두 같은 차림이 되었다.”<sup>18)</sup>

唐代에 여자들이 남장을 하는 것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일반 부녀 역시 남장을 하는 것이 크게 유행하여, 일종의 멋으로 여기게 되었다. 특히 開元·天寶 때에는 여자들이 남편의 의복을 즐겨 착용하여, 남녀의 차림에 남녀 구분이 없을 정도였다.<sup>19)</sup>

盛唐 때 부녀의 男裝이 성행했고 中唐에 이르러서는 복장의 신분차이나 및 남녀 구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安史의 난 이후 이러한 부녀자들의 남장유행은 점차 소멸하게 되었다. 그러나 宦人으로 행동의 편이함이 요구되는 직급에서는 오히려 正服으로 되어 이후의 왕조에서도 계속 착용됨을 볼 수 있고, 藝人에 있어서도 공연을 위하여 남장이 계속 착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도 11〉 궁녀(唐代의服飾, 3-19)



〈도 12〉 궁녀(Arts of China, 124)

17) *ibid.* 卷29〈諸王府公主邑司〉, 733.

18) 《新唐書》卷24〈車服志〉, 521 : 奴婢服襴衫.

19) 《舊唐書》卷45〈輿服志〉, 1957 : 而尊卑內外, 斯一貫矣.

러한 용도의 착용은 이후의 왕조에서도 계속 애용되어 행동의 민첩함이 요구되는 궁녀들도 계속 남자와 같은 복장을 하였고 공연을 위한 남장 역시 계속 착용되었다.

## V. 결 론

중국에 전래된 둥근 깃은 탁발씨와 쿠차인이 많이 착용한 복장이거나, 어느 민족의 복식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중국에 둥근 깃이 전래된 것은 남북조시대의 北魏(386~534년) 때로 중국인이 둥근 깃을 착용하는데 北魏 孝文帝의 漢化政策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둥근 깃이 중국화된, 즉 여밈방법이 단추로 되고 우임으로 고정된 것은 늦어도 北齊(550~577년) 때로 추정된다. 비교적 단시일내에 외국에서 들어 온 복장이 중국적인 복장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사회가 외래문화에 대해 개방적이었고 胡風이 크게 성행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 전래된 둥근 깃은 다양한 계층에서 착용하여 남자의 편복 및 관복으로 착용되었고, 여자들도 이를 즐겨 착용하여 여자의 남장이라는 새로운 유행을 낳게 되었다. 藝人과 宮人 심지어 노비들까지 착용하여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그러다 安史의 亂 이후 胡風의 유행이 점차 약화되면서 여자들의 착용은 藝人과 특수 궁인에게만 제한되었고, 이후의 왕조에 계속 그 제도가 이어졌다.

## 참고문헌

- 김미자, 〈중국의 단령에 대한 연구〉 《복식》 제3호, 1980년.
- 문광희, 《韓·中國領의 比較研究》, 부산대 가정

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7년.

- 敦煌文物研究所, 《敦煌藝術寶庫》, 臺灣, 地球出版社, 1988年.
- 《シルクロードの殘映》, 日本, 講談社, 1988年.
- 《通典》, 臺灣, 商務印書館.
- 《舊唐書》, 臺灣, 鼎文書局.
- 《新唐書》, 臺灣, 鼎文書局.
- 王仲孛 《魏晉南北朝史》, 上海, 人民出版社, 1994年.
- 邱添生, 〈唐代文化與外來文化〉 《師大學報》第16期, 臺灣, 國立臺灣師範大學, 1971年.
- 《唐六典》, 北京, 中華書局.
- 《中華古今注》, 上海, 商務印書館.
- 新疆自治區文物管理委員會·拜城縣千三洞文物保管所編, 《キジレ石窟》, 日本, 平凡社, 1983年.

## ABSTRACT

A Study on Chinese Round Neckline  
—In Reference to *The Five Hundred Thieves to Become Buddhist Monks*—

This is a studying on Chinese round neckline.

Chinese round neckline is originate from Kucha and Bei-Wei. After round neckline was flown into Chinese, it had been worn in all classes including Emperor as well as common people. Women-talents and court ladies-likes to wear it too, especially Tang Dynasty.

This study is describe processes of changes and characters of Chinese. The first inflow time of round neckline into China was assumed in Bei-Wei. In Bei-Chi, it changed right lapel

20) 주15와 같음 : 開元初……或有著丈夫衣服靴衫.

《中華古今注》卷中, 17 : 至天寶年中, 士人之妻, 著丈夫靴衫鞭帽, 內外一體.

and it fastened by a button.

In Chinese each dynasty, Round neckline

had been worn in Emperor, common people,

talents and a part of court ladies.